

모범 소수자를 넘어

나보령*

이민진의 『파친코』를 통해 본

이주민 소수자 서사의 도전과 과제

초록 이 글에서는 이주민 소수자 서사라는 측면에서 이민진의 『파친코』가 일본사회의 소수자이자, 아시아계 미국문학에서 다루어진 적 없는 제일조선인을 재현하는 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차성 페미니즘 및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파친코』에 나타난 소수자 재현의 도전과 성취를 부각하였다. 겹겹의 소수자성을 지닌 서발턴 여성의 능동적 행위로서 이주를 서사화하고, 소수자들의 불온한 공동체로서 열린 가족적 관계들을 가족사 연대기 소설 형식 안에 기입하였다는 점이 이와 관련해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파친코』가 재현한 불온한 공동체 속의 소수자들이 불온하기는커녕 너무도 모범적이라는 점, “역사가 우리를 망쳐 냈지만 그래도 상관 없다”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성공한 이주민 소수자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전작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에서부터 작가가 부수려 시도한 모범 소수자 성공 신화의 전형을 재생산하는 측면을 비판하였다. 나아가, 코로나 이후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증오 범죄가 만연한 세대 속에서 『파친코』의 전 세계적인 흥행을 넘어 아시아인의 재현에 대한 더 많은 발굴과 창조라는 과제가 긴급하다고 보았다.

주제어 이민 리, 디아스포라, 제일조선인, 자이니치, 미국 이민 서사,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미나리〉, 아메리칸 드림, 재미한인, 한국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문학, 교차성 페미니즘, 트랜스내셔널리즘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한국어문학연구소 선임연구원

1. 전쟁 이주민 출신 작가 이민진

이민진(1968년 서울 출생)은 유년기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계 미국인 작가이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전쟁기 원산에서 부산으로 피난한 월남민 출신으로,¹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1976년 뉴욕의 퀸즈로 이주하였다고 한다.² 이 과정에서 한국전쟁 직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 먼저 정착해있던 삼촌의 도움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³

재미한인들의 삶에 대해 연구한 여지연(2005)은 한국전쟁이 전쟁 당시나 직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훨씬 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이동을 발생시켰다고 본다. 표면상으로는 즉각적인 위협으로 인해 피난하는 난민보다는 일반적인 이주자나 이민자에 가까워 보일지라도, 개개인들의 생의 서사 차원에서는 전쟁 및 전쟁이 초래한 결과들—가족이 해체되고 익숙했던 삶으로부터 뿌리 뽑히는 과정에서 체감한 깊은 공포, 불안, 트라우마 등—로부터의 피난이 이주에서 핵심적인 요인이었음이 증명되는 전후의 다양한 유형의 이동들을 포괄해 그는 넓은 의미의 ‘피난 이주’(refuge migration)라고 규정한 바 있다.⁴

이 때 이주를 결심한 한국인들에게 전쟁 기간 경험한 미국의 막강한 부와 힘은 자연스럽게 아메리칸 드림을 품게 만들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1 Min Jin Lee (2021), “A Lifetime of Reading Taught Min Jin Lee How to Write About Her Immigrant World”, *The New York Times*, April 7; Min Jin Lee and Simon Winchester (2017), “Immigration Stories: Min Jin Lee with Simon Winchester (The New York Public Library, April 18, 2017)”, Library Talks Podcast, July 25.

2 Jonathan Soble (2017), “A Novelist Confronts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Korea”, *The New York Times*, November 6.

3 Min Jin Lee (2021).

4 Ji-Yeon Yuh (2005), “Moved by War: Migration, Diaspora, and the Korean War”,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8(3),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 281.

1924년 이래 아시아인에 대한 이민이 제한되어왔던 까닭에 합법적인 미국 이민은 전쟁신부나 전쟁고아, 전쟁포로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불가능했다. 주지하듯, 1965년 이민국적법(Hart-Celler Act)이 개정되고, 1968년 발효된 뒤에야 비로소 아시아인의 가족 단위의 미국 이민의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시기 떠났던 개척 이민자들이 재미한인 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면서 고국의 친지들을 초청하거나 도울 수 있었던 1970년대 무렵부터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은 한층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한국에서 증대된 미국 이민 열풍에는 이처럼 경제적이거나 개인적인 동기로만은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전쟁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다.

일례로, 최근 미국에서 개봉한 정이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2020)에서도 1970년대 미국으로 이민한 한국인 가족들의 이야기가 다루어지는데,⁵ 여기서도 한국전쟁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이 가능하다. 단적으로 할머니 순자(윤여정 분)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죽고 전후 서울에서 딸 모니카를 홀로 키우며 살아남은 이른바 ‘전쟁미망인’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주목되지 않았지만 이 영화의 심층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즉, 영화 속에서 미나리는 일차적으로는 낯선 타국에 뿌리내리고 적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한국인 이민자들의 상징으로 제시되지만, 심층에서는 미국으로 미나리 씨앗을 가져와 심는 할머니 순자의 행위에서 드러나듯, 전쟁의 공포, 죽음, 빈곤을 견디고, 강인하고 유연하게 살아남아 이제 후속 세대에게 삶의 의지와 지혜를 전수해주는 전후 보편적인 한국인들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이민진 스스로가 자전적 요소가 강하다고 언급한 재미한인들의 삶을 다룬 첫 번째 장편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2007)에서도 지난 전쟁의 자취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소설의 1장은 가난한 노

5 영화에서 다루는 시간은 1970년대 미국으로 이민 온 이래 캘리포니아, 시애틀 등지에서 십 년을 보낸 가족들이 가장인 제이콥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칸소로 이주하는 1980년대 초엽이다. 미국은 레이건 집권기였고, 한국은 ‘새 시대 새 국민’을 주창하는 전두환 집권기로 제시되고 있다.

동계급 이민자이자, 한국전쟁기 피난민이었던 조셉 한의 전쟁 트라우마를 전면화한다. 스스로를 피난민 소년 출신으로 정의하는 그가 전시 피난지 부산에서 겪었던 시간들은 1990년대 퀸즈의 낡은 아파트의 식탁 위에서 수시로 되살아나곤 한다. (“시간은 어김없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1953년이 되었으며 한국전쟁은 종식되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었다.”⁶). 소년의 몸으로 견뎌야 했던 폭력적인 피난민수용소 생활, 전후에도 지속된 가난, 고된 노동, 아내의 죽음 등 가족과 고향을 떠난 곳에서 안간힘을 쓰며 뿌리내려야 했던 그의 지난 시간들은 1970년대 미국 이민으로까지 물 흐르듯 이어지고 있다. 한은 그와 같은 자기 삶의 궤적을 전쟁과의 연속성 속에서 이야기한다.

〈미나리〉나 『백만장자』처럼 한국전쟁의 직간접적인 영향 속에서 이주한 한국인들을 여지없이 ‘피난 이주’라고 개념화했던 것처럼 넓은 의미에서 ‘한국적 유형의 전쟁 이주민’⁷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민진은 단순히 아시안 아메리칸이나, 한국계 미국인, 재미한인 1.5세대가 아니라, 그와 같은 전쟁 이주민 아버지를 둔 2세대라고 정의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아버지와 달리, 그는 한국전쟁을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인 한국전쟁을 문학을 통해 의식적으로 소환하려는 시도라든지, 『백만장자』의 출발점에서 직접적으로 표명되었던 전쟁 이주민인 부친

6 이민진(2008), 이옥용 역,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1, 이미지박스, p. 26; Min Jin Lee (2007), *Free Food for Millionaires*, New York: Grand Central Publishing, p. 8.

이 논문에서는 『파친코』와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을 인용 시 한국어 번역본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부분의 원본 서지 역시 병기하였다. 원본과 번역본이 다른 부분은 밝히고 원본을 인용하였다. 이 논문에서 인용한 판본은 참고문헌 참조.

7 필자는 박사학위논문에서 한국전쟁기의 피난민을 유엔난민기구가 정의한 난민 개념과 맞닿으면서도,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맥락에서 구분되는 ‘한국적 유형의 난민’으로 재규정하였다(줄고, 「전후 한국문학에 나타난 난민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2). 후속 연구에 해당하는 이 글에서는 전자와 달리, 즉각적인 전쟁의 위협과 정치적 박해는 감소하였을지라도, 여전히 경제적이거나 개인적인 동기로만 수렴되지 않는, ‘이주-비호의 연계성’(migration-asylum nexus)을 띠는 이동의 양상 및 이동하는 사람들을 좀 더 광의의 ‘한국적 유형의 전쟁 이주민’이라는 개념으로 포괄해 논의하고자 시도하였다.

에 대한 양가적인 심리—아버지의 전쟁 트라우마를 연민하면서도 언더리를 느끼고, 그의 고생스러웠던 지난날을 보상해주고 싶어 하면서도 부담감을 느끼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갈등—에서 드러나듯, 전쟁 이주민 2세대 작가로서의 정체성 문제는 이민진 소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⁸

이 글이 이처럼 이민진을 전쟁 이주민 출신 작가로서 재규정하며 출발하는 까닭은,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재일조선인의 삶을 서사화했다는 점에서 유례없고, 특별하게 받아들여진 그의 근작 『파친코』(2017)가 한국적 유형의 전쟁 이주민이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 결코 그와 무관하지 않은 주제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친코』는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한국인 디아스포라 3부작’⁹의 두 번째 작품에 해당한다. 소설의 첫 장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병합되었던 20세기 초엽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본격적인 서사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으로 점철된 제국주의 전쟁의 한복판에서 일본으로 이주하는, 또 다른 한국적 유형의 전쟁 이주민인 재일조선인 가족의 이야기로부터 전개되어 나간다. 작가는 이들의 운명을 세계대전 종식과 냉전 종식에 이르는 무렵까지를 배경으로 한 장기적인 전후의 시간 축과, 한국, 일본, 미국을 아우르는 광대한 공간 축 위에서 탐구한다.

이민진이 이 소설에 대한 구상을 처음 시작한 것이 냉전의 종식을 전후한 1989년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¹⁰ 한반도 안팎의 사람들이 통과해

8 한국전쟁을 다룬 문학작품 연구에서 세대론은 중요한 방법론이다. 작가가 생애의 어떤 시기에 전쟁을 겪고, 서사화했는가의 문제는 전쟁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구분 짓는 의미 있는 기준으로 여겨져 왔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는 이민진처럼 전쟁 ‘미 체험 세대’조차도 분류 기준이 된다. 한국전쟁 문학과 세대론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김윤식(1988), 「6.25 전쟁문학」, 『한국현대문학사론』, 한샘 참조.

9 세 번째 작품은 *American Hagwon*이라는 제목 아래 교육을 위한 한국인들의 유학 열풍을 다룬 소설로, 현재 집필 중이라고 한다[Alexis Cheung (2019), “An Interview with Min Jin Lee”, *The Believer* 127, October 1].

10 Min Jin Lee (2017), “Acknowledgements,” *Pachinko*, New York: Grand Central Publishing,

야 했던 기나긴 전쟁의 이 마지막 장에서 그는 자신과 다르면서도 전쟁 이주민 출신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을 공유하는 존재들에 대한 글쓰기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파친코』에서 이민진이 주목한 재일조선인은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발견한 드물고 우연한 소재 그 이상으로, 작가와 근본적으로 연결된 존재로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상기한 요인이 기원적 측면에서 이민진과 『파친코』의 재일조선인이 맞아 있는 점이라면, 그와 같은 이주의 결과 그들이 도착지에서 이주민 소수자가 되었다는 점 역시 양자가 공유하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파친코』에서 이민진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미국사회의 이주민 소수자의 관점에서 재일조선인이라는 일본사회의 이주민 소수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럼으로써 이 소설은 재일조선인 당사자들에 의한 자기 재현의 틀을 크게 넘어서지 않았던 기존의 재일조선인에 관한 소설들—예컨대, 손창섭의 『유맹』(한국일보, 1976. 1. 1~10. 28)이라든지, 양석일(梁石日)의 『피와 뼈』(血と骨, 1998) 등—의 문법을 벗어나는 시각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은 이처럼 한편으로는 전쟁 이주민 출신 작가에 의한 이주민 소수자 서사라는 측면에서 『파친코』가 보여준 도전 및 성취를 살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시사하는 과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려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파친코』가 재일조선인의 이주를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지식인 남성이 아닌 여성인물, 그중에서도 고향에서부터 젠더, 계급, 지역, 장애 등이 교차하는 겹겹의 소수자성을 부여받았던 낙인찍힌 여성인물에 초점화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해 교차성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소설이 재일조선인을 조선/일본, 남한/북한 등과 같은 국가 간의 경계에 놓인 존재들로서 조명하는 대신, 일본사회 속의 소수자 문

제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접근하고, 나아가 그들 간의 돌봄과 연대가 이루어지는 가족적 공동체를 조명함으로써, 내셔널리즘의 관점과 상상력을 넘어서는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파친코』가 이주민 소수자로서 재일조선인 인물들을 재현하는 방식과 관련해 애초에 문제의식을 갖고 탈피하고자 했던 모범 소수자 신화를 무의식적으로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측면을 전작 『백만장자』와의 비교를 통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교차성의 관점에서 읽는 여성의 이주 서사

만주사변 이래 날로 전운이 짙어만 가는 한반도에서 일본 오사카를 향해 떠나는 김선자와 백이삭의 여정은 『파친코』를 관류하는 이주 서사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내지’로 말해지는 일본 본토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부산과 시모노세키 항구 사이를 흐르는 현해탄을 건너야 한다. 식민지 시기 임화는 시 「현해탄」(중앙, 1936. 3)에서 이 바다를 “청년들의 해협”이라고 이름 붙였다. 수많은 조선 청년들이 민족을 위한 결의와 희망, 그리고 슬픔과 좌절 속에서 그곳을 건넌 까닭이다(“한결같이 사내다웁던/모든 청년들의 명예와 더불어/이 바다를 노래하고 싶다”). 그런데 『파친코』에서 이민진은 그와 같은 고귀하고 명예로운 청년 이삭이 아닌, 비천한 여성 선자에 초점화한 채로 현해탄을 가로지르는 이주 서사를 펼쳐내 주목된다.

이삭은 ‘조선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도시 평양의 신학교에서 근대적인 서구식 교육을 받은 지주계급 출신의 기독교인 청년이다. 그는 3.1운동 때 순국한 독립운동가였던 큰형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압제 받는 동포들을 위해 헌신하려는 사명에서 오사카의 조선 이주민 교회에 목사로 부임하는 길을 택했다. 고매한 종교적, 계몽적 이상과 희생정신 속에서 감행된 이삭의 도일(渡日)은, 식민지 조선 출신 망명 지식인 청년들의 명예로운 계보, 그

리고 임화가 노래한 현해탄의 파도 위에 오른 의로운 청년들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그와 대조적으로, 부산 근처의 작은 섬인 영도 출신의 하층 노동계급 여성이자, 남몰래 사생아를 임신한 채로 감행하는 선자의 이주는 결코 이삭과 같은 숭고한 의미를 띠지 못한다. 일찍이 생선 중개상인 고한수와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갖게 된 선자는 상대가 처자가 있는 기혼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조선 여성들에게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평생을 손가락질 받는 첩으로 살며 족보에 오르지 못하는 자식을 키우거나, 뱃속의 태아를 불법적으로 타태하거나, 혹은 신중하지 못했던 처신과 가족들의 불명예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자결하는 길이 그것이다. 세 방법 모두 여성에게 지울 수 없는 오명과 낙인을 부과하며, 설사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자신은 물론, 태어날 아이와 원 가족 모두 사회적인 죽음에 처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선자의 경우, 사생아를 임신한 부정한 여성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기 이전부터 이미 뒤틀린 발과 언청이¹¹ 장애를 가진 아버지 김훈의 혈통으로 인해 고향에서는 '정상적인' 결혼이 불가능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인망 덕분에 그동안 소녀를 향한 차별과 배제는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숨겨진 카스트 제도가 드러나고, 자기기만적으로 부인되었던 신분 의식이 표출되는”¹² 결혼 앞에서 그것은 비로소 분명하게 가시화되고 자각되기에 이른다. 혼기가 짙어 갈 때까지, 그리하여 어머니 양진의 하숙집을 드나드는 어부들이나, 고한수를 비롯한 시장의 못 남성들의 시선에 선자의 원숙한 육체가 한껏 노출되고, 일본인 불량 남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할 때까지도 선자에게는 어떤 혼담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11 의학 용어로 '구순구개열'인 이 기형은 실제로 유전이 되는 장애는 아니지만, 과거 한국인들 사이에 흔해 유전병으로 인식되곤 했다.

12 김현경(2015),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p. 68.

선자 엄마는 선자에게 결혼을 강요하지 않았다. 아무도 선자 엄마에게 딸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 하숙인들도 선자를 놀리기만 할 뿐 결혼 상대로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임신을 하고 나서야 선자는 자신이 아버지처럼 기형인 아이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¹³

장애를 대물림할 수 있는 나쁜 혈통이 흐르는 여성이자, 기혼 남성의 아이를 가진 미혼모로서 선자가 고향에서도 온전한 시민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동체의 적격함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낙인찍힌 존재였다는 사실은 특기해둘 만하다.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낙인은 『파친코』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비단 재일조선인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소수자들을 통해 이 소설은 끊임없이 낙인의 주제를 변주해 나간다.

그러나 선자가 낙인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곧바로 그의 취약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국경을 넘는 선자의 이주라는 실천이다. 기존 논의에서 선자의 이주는 대체로 고향과 조국으로부터의 “추방”, “실향”, “장소상실” 등으로 설명되어져 왔다.¹⁴ 그러나 낙인의 피해자로서뿐만 아니라, 행위자로서 선자를 조명할 때 그의 이주는 자신에게 부여된 겹겹의 낙인으로부터 탈피해 자신과 뱃속의 아이의 생명, 그리고 명예를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재해석해보는 것 역시 가능하다.

과연 『파친코』에서 이민진은 선자의 이주를 이삭의 고귀한 여정에 동반된 수동적이고 우연한 부산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남자들은 우리 여자

13 이민진(2018), 이미정 역, 『파친코』 1, 파주: 문학사상, pp. 83-84; Min Jin Lee (2017), pp. 50-51.

14 강유진(2019), 「역사가 우리를 망쳐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서평), 『교양학연구』 9, 중앙대학교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p. 259; 임진희(2019), 「민진 리의 『파친코』에 나타난 재일한인의 장소담론」,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8),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p. 273.

들하고는 다르게 선택을 할 수 있다.”¹⁵라는 할머니의 말과 달리, 이 대목에서 선자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 그리고 과거의 사랑에 대한 책임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있다. 오히려 이삭이야말로 선자를 조력하는 보조 역할처럼 보이는데, 이는 이삭이 결혼과 도항중으로 대변되는 오사카행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끝나자마자 감옥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서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데서도 확인된다.

한편, 이 과정에서 만주사변 이래 가속화된 전시체제 속에서 증대된 조선인들의 이주 붐, 그리고 이삭의 수감으로 상징되는 중일전쟁 이후 한층 노골화 된 제국의 억압과 폭력이 선자에게 일종의 기회로 작용하기도 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남편 이삭이 감옥의 창살 너머로 사라진 뒤, 오사카를 무대로 펼쳐지는 선자의 활약상을 담은 『과친코』 2부의 머리말에서 “아무리 고개를 넘고 내를 건너도 조선 땅이고 조선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았다”¹⁶는 문장으로 인용된 박완서의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웅진출판, 1992)는 이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식민지 시기 박완서의 도시 이주 체험을 반영한 이 자전적 소설은, 전작인 「엄마의 말뚝」 1(문학사상, 1980. 9)을 통해 제시되었던, 개성의 박적골이라는 시골에서 식민지 조선의 수도 경성으로 상경하는 모녀의 이야기를 확대해 다시 쓴 것이다. 두 작품에서 모녀의 이주는 아버지의 돌연한 죽음을 계기로 가부장제 질서가 흔들리게 된 시골의 대가족으로부터 출분해 경성의 변두리(‘분밖’)에서 독립을 시도하는 엄마의 결단에 의한 것으로 제시된다.

여기서 엄마의 야심찬 이주를 추동하는 요소는 딸을 근대적인 도시의 신여성으로 만들겠다는 강렬한 계몽과 자유의 욕망,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 역시 근대적인 엄마/신여성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은밀한 욕망이

15 이민진(2018), p. 23; Min Jin Lee (2017), p. 11.

16 이민진(2018), p. 7; Min Jin Lee (2017), p. 148

다. 이 다층적인 겹을 지닌 박완서 소설 속 모녀의 이주는 공교롭게도 『파친코』에서 선자가 식민지의 시골인 영도에서 제국의 도시인 오사카의 슬럼가로 이주해 실질적인 여성가장으로 자립하는 1930년대 중반 무렵과 시기적으로 겹친다.

「엄마의 말뚝」 1에 나타난 식민지 여성의 이주 서사에 대해 선행연구 가운데 가장 섬세한 읽기를 시도한 최경희(2006)가 지적하였듯, 민족적으로는 고통스러웠던 수난과 위기의 시기, 일본의 식민 통치와 제국주의 전쟁이 몇몇 조선 여성들에게는 일종의 가능성과 혜택의 시공간을 마련해주었다는 사실은 분명 곤혹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 박완서의 소설에 대한 최경희의 해석처럼 이 시기 어떤 여성들은 전근대적인 시골과 규방 또는 안채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여성의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지연된 “근대로의 여행”¹⁷을 떠날 수 있게 되었으며, 비록 운동으로서의 급진성은 사라져버리고 대중적인 유행 차원에서마저 구식이 되어버렸을지라도, 비로소 ‘신여성’의 빛바랜 이상과 간신히 접속하는 일들이 가능해졌다.¹⁸

『파친코』에서 이민진은, 박완서의 소설들과 유사하면서도 훨씬 극적인 방식으로, ‘역사가 우리를 망친’ 바로 그 전쟁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장애와 미혼모라는 낙인을 부여 받은 채로 외딴 섬마을에 유배되어있던 노동계급 출신 여성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장애가 있는 발로 상징되는 이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국경을 넘어 일본 제국의 근대 도시의 한복판으로 일대 도약하는 서사를 펼쳐낸다.

요컨대, 『파친코』는 민족주의적 지식인이자 기득권 남성인 이삭의 망명 서사가 아닌, 젠더, 장애, 계급, 지역 등이 교차하는 겹겹의 소수자성을 부여받은 존재인 선자를 중심으로 한 이주 서사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역설

17 최경희(2006), 「식민지적이지도 민족적이지도 않은: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1」에서 ‘신여성’의 형성」,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서』(신기욱 외 편), 서울: 삼인, p. 337.

18 최경희(2006), pp. 336-343.

적으로 이주가 언제나 상실의 서사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님을, 억압적이고 전근대적인 사회가 부여한 낙인으로부터의 적극적인 탈출의 서사로서 기술될 수 있는 가능성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이 점에서 봤을 때 여성의 공간 이동이 젠더 협상과 관련된다는 젠더 지리학의 관점에서 선자가 전통적인 공간의 젠더 질서와 교섭하며, 자신의 장소를 만들어나가는 양상에 주목한 이경재(2021)의 논의¹⁹는 흥미로우면서도, 좀 더 정교해질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일찍이 흑인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인 오드리 로드(Audre Lorde)를 비롯한 교차성 페미니즘 논자들이 강조한, 단일한 여성이라는 젠더로만 환원되지 않는 여성들의 복합적인 위치 및 그들을 둘러싼 여러 억압 기제의 교차성이 선자의 이동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²⁰

한편, 교차성의 관점에서 국경을 넘는 선자의 이주를 논할 때, 고향인 식민지 조선의 시골 영도를 폐쇄적이고 야만적인 전근대의 공간으로, 반대로 제국 일본의 도시 오사카를 근대 문명과 자유, 해방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단순한 이분법의 구조에 빠지지 않도록 역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라이 클레어(Eli Clare)가 에세이 『망명과 자긍심』을 통해 치열하게 보여주었던, 노동계급, 장애, 퀴어,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게조차 고향은, 억압, 폭력, 차별, 혐오, 수치심으로 얼룩진 한편에서, 자신과 긴밀하게 연결된 장소들에 대한 애정 어린 소속감과 친밀성을 느끼게끔 해주는 곳이자, 자긍심의 원천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²¹

실제로 『과친코』 1부의 머리말에 인용된 고향에 대한 찰스 디킨스의 헌사가 시사하듯, 영도는 선자에게 복합적이며 양가적인 장소성을 형성하고

19 이경재(2021), 「이민진의 『과친코』에 대한 젠더지리학적 고찰」, 『춘원연구』 22, 춘원연구학회, pp. 103-133.

20 오드리 로드(2018), 주해연·박미선 역, 『시스터 아웃사이드』, 서울: 후마니타스.

21 일라이 클레어(2020), 전해은·제이 역, 『망명과 자긍심: 교차하는 퀴어 장애 정치학』, 서울: 현실문화, pp. 92, 98.

있다. 이곳은 선자처럼 미혼모가 된 소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곳이자, 선자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나쁜 혈통을 거론하며 누구도 그와 결혼하려 들지 않는 배타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선자에게 영도는 아버지의 사랑, 교육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영리하고 강인한 노동하는 여성들의 모습, 가족이나 다름없는 하숙집 사람들과의 유대감,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 풍광이 어우러져 굳건한 자긍심의 원천이 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단적으로 선자가 고향에서 노동계급 출신 여성으로서 어려서부터 교육 대신 겪어야 했던 온갖 노동들은 고되고 지긋지긋한 기억으로만 제시되지 않아 눈길을 끈다. 그는 “여자의 인생은 일이 끊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삶”²²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고, 주위의 여느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고통받아왔다. 그럼에도 지주계급 출신으로 오사카의 비스킷 공장의 말단 관리인이 된 백요셉과 달리, 노동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는 비록 노동을 천시하지는 않을지라도 극히 한정된 가사노동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었던 양반 가문 출신 여성인 경희나, 태어날 때부터 너무도 병약해 자기 손으로 거의 돈을 벌어보지 못한 이삭의 경우와도 다르다. 고향 영도에서 선자는 노동하는 이들의 근면함, 활기를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한편, 깊이 존경하고 긍지로 여기면서 성장하였다.

아버지의 장애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를 갖게 된 뒤에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뚜렷한 사회적 낙인인지 자각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선자에게 아버지의 ‘불구’는 결코 혐오와 열등함의 표식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시장에 갈 때 늘 뒤처지곤 했던 아버지를 기다려야 했던 기억은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의 행복하고 충만했던 시간의 한 토막으로 회상될 뿐이다. 세 가족이 함께 둘러앉았던 친밀하고 평등했던 저녁식사 시간에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가부장주의적이지 않은 면모 역시 훗날 여성가장이 되는 선자의 정체성

22 이민진(2018), p. 48; Min Jin Lee (2017), p. 27.

과 자존감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박완서의 소설에서 최경희가 이미 주의 깊게 지적하였듯, 식민지인에게 근대 도시가 “멋진 신세계”인 동시에 “암흑의 심장부”이기도 하다는 사실,²³ 다시 말해 식민지인의 근대 도시 체험을 일면적으로 낭만화하지 않는 일이다. 물론 대도시 오사카의 익명성 속에서 선자는 친밀한 관계들로 이루어진 고향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몇몇 낙인들을 패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수와 이삭이 들려주던 황홀하고 환상적인 여행담이나, 복희, 덕희 자매가 전달해주던 풍문 속의 도회적인 이미지들과 달리, 오사카의 슬럼가 이카이노에서 선자는 가족과 함께 지내야 할 만큼 계층적 지위가 하락하였고, 철저히 주변화되었다. 손영희(2020)가 지적하였듯, 이곳에서 선자를 비롯한 조선인들은 아감벤이 말한 ‘벌거벗은 생명’으로 수용된 처지가 되었다.²⁴

또한 일본에서 선자는 식민지 출신 이주민이자 소수자라는 또 다른 낙인을 부여받고 대물림하는 존재가 되었다. 단적으로 선자는 이삭과의 결혼 이주를 통해 자식인 노아를 사생아의 낙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아가 평생을 제일조선인의 낙인 아래 자기 스스로를 혐오하며 고통 받다가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파친코』는 선자가 취한 행동으로 인해 노아가 자살을 감행하는 은유적인 장면을 통해 노아를 위한다는 명분에서 내려진 선자의 일련의 선택들—그중에서도 이주—이야말로 노아를 죽음으로 내몬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주가 결과적으로 선자로부터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아이러니를 섬뜩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선자에게 이주가 억압과 폭력으로부터의 탈출이면서 동시에 깊은 상실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입체적으로 이해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23 최경희(2016), pp. 342-343.

24 손영희(2020),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계 넘기: 이민진의 『파친코』에 나타난 경계인의 실존양상」, 『영어영문학』 25(3), 미래영어영문학회, p. 70.

3. 가족: 트랜스내셔널한 상상의 공동체

『파친코』 2부는 일본을 무대로 선자가 백씨 일가의 여성가장으로 자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편에서, 일본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재일조선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채 ‘영원한 이방인’의 처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노아와 백모자수 세대를 중심으로 재일조선인의 정체성 갈등 및 사회적 차별 문제를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주목되는 점은 이 소설이 재일조선인의 삶을 전면화하는 동시에, 재현의 외연을 일본사회 속의 낙인찍히고 배제당한 다양한 소수자들을 향해 확대해나가는 작업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파친코』에서 선자 가족의 서사에만 주목한 대부분의 논의들에서는 간과되었지만,²⁵ 주로 재일조선인이 당하는 차별과 소외, 정체성 문제에 집중해 이를 당사자 재현의 방식으로 제시하곤 했던 전통적인 재일조선인 소설의 관습과 비교했을 때 『파친코』가 보여주는 새로움이다. 이민진은 재일조선인 문제를 조선/일본, 남한/북한이라는 상대적으로 익숙한 국가 간 대립의 맥락에서 벗어나, 동시대 일본사회의 소수자 문제라는 제3의 맥락 속에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사회 속 아시아계 이주민이라는 또 다른 소수자로서 이민진의 위치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임은 물론이다.

일례로, 모자수의 서사가 전개되면서 소개되는 도토야마 하루키 가족의 서사를 살펴보자. 하루키는 재봉 일을 하며 홀로 자식들을 키우는 가난한 어머니와 장애를 갖고 태어난 동생 다이스케와 함께 살아가는 소년이다. 이들은 일본인이지만 조선인 빈민가와 맞닿은 경계 지역에 산다. 집주인들이 이 가족의 불행을 저주로 여기며 살 곳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노골적

25 드물게도 이 문제를 언급한 논의로는 Fran Bigman (2017), “Shadow of the stain: Min Jin Lee’s moving saga of a Korean family in Japan”, *Times Literary Supplement* 5947, London: NI Syndication Limited, March 24; Todd Munson (2019), “Contextualizing Min Jin Lee’s *Pachinko*”, *Education About Asia*, 24(3),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pp. 54-57.

인 배제는 학교에서도 계속된다. 훗날 분명해지는 그의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 역시 전후 일본사회에서, 특히 경찰이라는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낙인인 까닭에, 하루키는 형식뿐인 이성애 결혼으로 섹슈얼리티를 패싱한 채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한편, 모자수가 유품과 사별한 뒤 사귀는 나가토미 에쓰코 가족의 사연도 주목된다. 평범한 중산층 가족의 주부였으나, 불륜을 저지른 이후로 에쓰코는 ‘정상사회’에서 영원히 퇴출당했다. 심지어 어머니의 불륜과 이혼이라는 낙인은 자식들의 삶조차 가로막는다. 단적으로 에쓰코의 딸인 하나는 십대의 나이에 도쿄 롯폰기의 뒷골목에서 호스티스와 매춘부 일을 전전하다 HIV 감염병자가 되어 시설에 수용된다.

비슷하게 노아가 나가노에서 재일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하는 리사의 이야기도 있다. 그는 의사인 아버지가 의료사고를 내고 자살한 뒤, 계층의 사다리 아래로 떨어져 재일조선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파친코 회사에서 단순 사무직으로 일하며 살아간다. 또한 자살을 한 아버지의 ‘나쁜’ 혈통을 물려받은 여성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노아의 청혼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정상적인 결혼이 불가능한 존재로 제시된다.

이 외에도 전근대 일본에서 오랫동안 불가촉천민으로 분류되어온 부라쿠민(部落民) 출신들을 포함해 『파친코』는 비단 재일조선인뿐만 아니라, 혈통, 지역, 성정체성, 장애, 질병, 행실 등의 이유로, 일본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일본사회의 경계 바깥으로 밀려나 온전한 시민권을 주장할 수 없는 소수자들이 당하는 차별과 소외, 그리고 그들 삶의 취약성을 가시화한다. 또한 그들에 대한 낙인(‘식별’)과 배제(‘관리’)가, 재일조선인의 외국인등록증이나 거주신고제도, HIV 감염병자와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통해 드러나듯,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재생산되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일본은 절대 변하지 않아. 외국인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 사

랑, 넌 언제나 외국인으로 살아야 할 거라고. 절대 일본인이 되지 못해. 알겠어? 자이니치는 여행을 떠날 수 없는 거 알지? 하지만 너만 그런 게 아냐. 일본은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도 다시 받아주지 않아. 나 같은 사람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지. 우리는 일본인인데도 말이야!”²⁶

일본사회 곳곳에서 미시적으로 작동하는 그와 같은 경계 짓기와 낙인의 정치를 통해 이 소설은 이른바 ‘정상성’ 내지 ‘주류사회’에 포함된다는 개념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환상적인지 폭로한다. 특히 ‘정상’과 ‘주류’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조차 언제든—그것이 실수이든, 불운이든—한순간에 경계 바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사실은, 경계 안에 편입되고 동화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던 노아나 솔로몬이 직면한 불가피한 좌절과 쌍을 이루며, 이 문제가 결코 개인의 특출난 능력이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이 글이 주목한 측면이 『파친코』에 비중 있게 기입되어 있는 소수자들 간의 돌봄과 연대의 풍경이다. 예컨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하루키를 또 다른 왕따의 피해자인 모자수가 지켜주는 행위, 재일조선인 사업가인 고로가 하루키 어머니의 사업을 돕는 행위, 모자수가 에쓰코를 사랑하게 되면서 모자수는 물론 선자와 경희 역시 하나를 돌보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때 이들의 돌봄과 연대가 가족 공동체의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눈길을 끈다.

권현익(2020)은 냉전 이데올로기와 국민국가의 경계 짓기 논리에 의해 오랫동안 정치적 개입과 통제의 주된 표적이 되어왔으면서도, 그와 같은 현대 정치권력의 일방적인 지배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인간관계들이 존재하는 장소로서 ‘가족’에 주목하였다.²⁷ 그에 따르면, 가족 및 일상적인 친족

26 이민진(2018), 『파친코』 2, p. 361; Min Jin Lee (2017), p. 467.

27 권현익(2020), 정소영 역, 『전쟁과 가족』, 파주: 창비, pp. 117, 126.

공동체들은 국가권력이 강제하는 절대적인 정치적 결합력과 동질성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훨씬 다원적이고 포괄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다원성에 바탕을 둔 고유하고 자율적인 윤리아말로 국가의 배제의 정치학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점에서 권현익은 가족을 퇴니에스의 개념을 전유해 ‘불온한 공동체’(bad Gemeinschaft)라고 표현하였다.²⁸

권현익이 주목한 가족의 속성에 비추어 이민진의 가족사 소설인 『파친코』를 읽을 때 선자의 가족 역시 국가권력이 행사하는 배제와 적대를 반영하거나 재생산하지 않는 유일한 영역으로서의 ‘불온성’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국민국가의 경계(조선·한국/일본)와, 이데올로기의 차이(조련에 가입해 북한으로 귀화한 좌익 김창호/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부모님이 처형당한 요셉과 경희) 모두를 초월하고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그 점에서 이 가족 공동체의 불온성은 말 그대로 트랜스내셔널한 성격을 지닌다.²⁹

이와 관련해 『파친코』 3부의 머리말에서, 그것을 비틀고 넘어서려는 의도에서 인용된 베네딕트 앤더슨의 잘 알려진 근대적인 민족(nation)의 정의³⁰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민족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이다”라는 앤더슨의 정의와 달리, 이 소설에서 선자의 가족을 통해 상상되는 공동체는, 한정된 경계를 갖지 않고, 적법한 주권을 지니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심오한 수평적 동료의 식으로 상상”³¹되는 공동체이며, 바로 그 점에서 트랜스내셔널하다.

28 권현익(2020), pp. 97-102.

29 『파친코』에서 트랜스내셔널한 성격을 지니는 또 다른 존재가 바로 고한수이다. 국경이나 이념의 차이와 무관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초국가적 자본을 상징하는 그는 다른 의미에서 ‘불온’하다. 이 글에서는 지면상 충분히 고한수라는 인물을 분석하지 못했는데, 그에 관해 후속 연구들에서 보완될 수 있기를 바란다.

30 Min Jin Lee (2017), p. 324. 1, 2권으로 분권된 한국어 번역본에는 3부의 머리말이 생략되어 있다.

31 베네딕트 앤더슨(2002), 윤희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서울: 나남출판, p. 27.

이 점을 고려할 때 『파친코』 3부의 말미에 이르러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은 솔로몬이 피비를 따라 미국으로 가지 않고, 가족들과 일본에 남는 길을 선택한 행위는 훨씬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³² 일견 수동적, 체념적으로 읽히는 솔로몬의 일본 잔류는, 회사를 나온 뒤 그가 들른 요코하마에서 재일조선인 파친코 사업가인 고로와 모자수, 그리고 일본인 쿠퍼 경찰인 하루키가 가족처럼 어울리는 풍경, 그리고 오사카에서 일본인 HIV 감염병자인 하나와 노년의 재일조선인 여성들인 선자, 경희, 양진 등이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풍경을 떠올려보았을 때, 솔로몬의 가족들이 일본 안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창조한 트랜스내셔널한 공동체 안에 잔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로 읽을 수 있다.³³

32 손영희는 솔로몬이 피비와 결혼해 미국인이 되는 길을 택하지 않은 행위를 한국이나 일본 또는 제3국에 귀속되는 방식의 내셔널리즘을 초월하여 트랜스내셔널한 주체가 되기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고는 그와 같은 해석에 동의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 가족사 소설로서 『파친코』가 의미 있게 부조하는 가족이라는 영역을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는 문제의식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미 부여하려고 했다. 또한 이는 오테영의 논의로부터 한 걸음 나아가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오테영은 재일조선인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지탱하는 상징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아가 경계 그 자체를 무화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중요한 지적을 했다. 그러나 논문은 『파친코』에 재현된 재일조선인을 자기 정체성 보존과 확립에 실패하고, 장소를 상실당한 채 경계 밖으로 내몰린 자들로 분석하는 관점에서 기술되고 있어 결론에서 언급된 “트랜스내셔널 디아스포라의 탈경계적 삶의 가능성”을 『파친코』가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논증하지 못했다. 그와 같은 한계를 이 논문에서는 ‘불온한’ 소수자들의 연대와 돌봄, 그리고 열린 가족 만들기라는 측면에서 논의함으로써 돌파하고자 했다[손영희(2020), p. 79; 오테영(2021), 「경계 위의 존재들: 이민진의 『파친코』를 통해 본 재일조선인의 존재 방식」, 『현대소설연구』 82, 한국현대소설학회, p. 401].

33 이와 관련해 참조할만한 논의가 ‘파이차제 스베틀라나·현무암 저, 고토 하루키 사진(2019), 서재길 역, 『사할린 잔류자들』, 서울: 책과함께’이다. 이 책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던 사할린으로 이주하였던 사람들(그들 역시 넓은 의미에서 자이니치로 분류되기도 한다)의 전후의 삶을 조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개척한,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을 횡단하고 초월하는 다민족적, 다문화적, 다언어적 인간관계와 생활권, 그리고 창조적인 아이덴티티를 전면화해 흥미롭다. 이 책에서도 가족이라는 단위는 중요한데, 정창훈(2021)이 지적하였듯, 가족은 그동안 개별 민족들의 서사로만 다루어진 사할린 잔류자들의 문제에서 간과되어왔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불가피한 ‘잔류’를 만들어낸 고리

나아가 『파친코』의 가족이 권현익이 언급한 친족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서는 훨씬 개방적인 형태를 띤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소설에서 국민국가의 경계 짓기와 냉전 이데올로기의 구획을 넘어 서로 간의 돌봄과 연대를 실천하는 이 소수자들은 전통적인 혈연공동체와 이성애 결혼 및 법률혼의 관계에 기반한 ‘정상가족’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멤버십의 관계들로 구성된 가족적 공동체의 모습을 보인다. 요컨대, 가족사 소설로서 『파친코』를 논할 때 핵심은, 선행 논의에서 주목한 것처럼 모계 중심 서사인지 부계 중심 서사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소설이 기존의 가족사 연대기 소설을 한정지어온 폐쇄적인 혈연적, 제도적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상상력을 서사화 한다는 데 있다.

실제 서사가 진행되어 갈수록 김훈과 양진에서 시작된 일가는 점점 더 확장되고 느슨해지는 경향을 띤다. 혼외자식을 임신한 선자와 이삭의 결합, 요셉과 경희 부부 그리고 창호의 관계, 솔로몬과 에쓰코의 관계, 선자를 대신해 병든 양진을 돌보는 경희의 관계, 솔로몬 가족 곁으로 이사 온 하루키와 고로의 관계, 평생을 선자 가족의 주위를 맴돌며 돕는 한수에 이르기까지. 특히 『파친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르러 작가는 이삭의 무덤에 노아의 사진을 묻고 경희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결말은 처음 이 여성들을 일본으로 이주하게 만들었고, 가족으로 결합시켰던 백씨 일가의 남성들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그들이 끈끈한 가족의 관계를 유지하며 이국땅에서 함께 삶을 일구어나가는 풍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뜻깊다.

아리파 아크바르(2017)가 지적하였듯, 『파친코』에는 온전한 형태의 핵가족이 제시되지 않는다. 수감되어 죽고, 병들어 죽고, 피폭되어 죽고, 자살

이자, ‘잔류’ 이후 생활을 지탱시킨 버팀목”으로 비중 있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정창훈, 「국가적 서사 담론의 ‘여백’을 기록하기(서평)」, 『상허학보』 62, 상허학회, 2021, p. 491]. 이민진의 재일조선인 가족사 소설인 『파친코』의 결말을 해석하는 데 사할린 잔류 가족들의 트랜스내셔널한 생활 실천과 삶의 서사는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

하고, 사고로 죽는 등 이 소설은 다양한 양상의 가족구성원의 해체와 상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이 점이야말로 이주가 어떻게 여러 세대에 걸쳐 한 가족을 파괴시키고 뿌리 뽑히게 만드는지를 생생하게 확인시켜준다는 것은 옳은 지적이다.³⁴

그러나 그 부서지고 해체된 이들이 함께 모여 다시 어떻게 서로를 돌보고 회복하며 삶을 이어나가는지, 불완전한 이들이 어떻게 전통적인 가족과 세대의 경계를 넘어 앤더슨이 말한 ‘깊고 수평적인 동료의식’(a deep, horizontal comradeship)이 바탕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추구해나가는지에 대해 『파친코』는 주의 깊게 서사화하며, 그 점에서 기존의 가족사 소설을 갱신하는 성취를 달성하고 있다. 애초에 『파친코』의 서사가 출발했던 기원의 장소가 식민지 부산 영도의 작은 하숙집이었다는 사실,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고 환대하는 소수자들이 만든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아도 좋겠다.

4. 모범 소수자 신화를 넘어

이상과 같은 소수자 서사로서의 도전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파친코』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간접적으로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모범 소수자’ 신화이다. 모범 소수자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자주 쓰이며 전형이 된 말로, 유색인 이민자에게 가해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성공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이들을 뜻한다. 그 이면에는 흑인 또는 히스패닉처럼 범죄나 말썽을 일으키거나 빈곤하지 않은 모범적이고 근면한 이민자, 소수자라는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34 Arifa Akbar (2017), “Pachinko by Min Jin Lee—everyday heroes”, *Financial Times*, February 24.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이자, 시인으로서 살아가며 느끼는 소수자적 감정들에 대해 쓴 캐시 박 홍(Cathy Park Hong)의 에세이 『마이너 필링스』에 따르면, 일견 칭찬처럼 들리는 모범 소수자라는 용어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아무리 모범적이고 우등하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흑인이나 히스패닉에 비했을 때이지 결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 다시 말해 이른바 대나무 천장(Bamboo Ceiling)을 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리하고 성공적인 집단으로 간주되는 것과 동시에 로봇 같고 무감정하며 쉽게 교체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상을 주면서, 본질적으로는 아시아인을 인간 같지 않은 존재로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점이다.³⁵

이민진이 『과친코』에서 선자의 가족을 통해 재현하는 제일조선인 역시 근본적으로 일본사회 속의 모범 소수자의 면모를 보인다. 더 나아가 이들은 제일조선인이라는 낙인 하나만 제외하면, 모범을 넘어 거의 환상에 가까울 만큼 완벽하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제시된다.

외면적으로는 대부분 잘생기고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있으며, 김훈의 일찍 죽어버린 자식들과 달리 아무도 장애가 발현되지 않았다. 내면적으로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예의 바르며 욕설을 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는다. 모자수가 사춘기에 종종 싸움을 했던 이유는 언제나 그가 아닌 일본학생들의 잘못 때문이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과친코 일을 시작한 뒤로 그가 결코 남을 속이거나 해를 입히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은 거듭 강조된다. 심지어 야쿠자인 한수마저 아주 품위 있고 관대한 인물로 제시되는 까닭에, 독자는 그가 자신의 딸보다 어린, 그의 물질적 원조를 받는 철딱서니 없고 무례한 일본인 애인을 장애를 입을 때까지 때리는 장면에서조차 그것을 ‘처벌’이 아닌, 폭력으로 받아들이거나, 그 때 맞는 여성인물에게 동정심을 느끼기 어렵다.

이들은 전부 시스젠더이며 이성애자이다. 그리고 순애보의 사랑을 하

35 캐시 박 홍(2021), 노시내 역, 『마이너 필링스』, 서울: 마티, pp. 14, 57.

는 낭만적인 존재들이다. 평생에 걸쳐 한 여성만을 사랑하는 요셉, 한수, 창호 같은 남성들의 한편에는, 남편이 죽은 뒤로도 어떤 이성에게도 눈 돌리지 않는 양진, 선자, 경희 같은 여성들이 있다.

선자의 가족들은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왔지만, 동시에 초인적인 회복력을 지니고 있다. 그 덕에 아무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술, 담배, 약물, 노름에 중독되는 법이 없으며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는다. 예컨대, 모자수는 아버지가 고문 받아 죽고, 큰아버지가 피폭 당해 죽고, 유일한 형제가 정제성 갈등 끝에 자살하고, 첫눈에 반한 아내마저 허망하게 자동차 사고로 죽었는데도, 우울증 내지 PTSD라 할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경희는 고향에 있는 부모님의 생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고, 소중한 친구이자 은밀하게 사랑하는 사이였던 창호가 복송된 뒤 연락이 끊겨버리고, 그토록 원했던 자식을 갖지 못한 채 이국에서 홀로 늙어 가는데도 외로움을 호소하거나, 신을 저주하는 법이 없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 기이할 만큼 비인간적이고 기계 같은 존재처럼 비추어진다.

사실 '오점', '열등함'을 보이는 인물들이 이 소설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질들이 선자의 가족으로 대변되는 제일조선인 집단으로부터는 말끔히 축출된 채 모조리 타자인 일본인 집단에 전가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변덕스럽고 예민한 성격에 무능력한 한수의 일본인 처자식들이라든지, 전시에 선자의 가족들을 고용하였던 게으르고 멍청한 데다 탐욕스럽기까지 한 일본인 농장주의 가족들을 떠올려보자. 말로만 진보적인 척하고 실제로는 속물적이고 야비한 인종차별주의자인 아키코, 솔로몬의 회사 상사는 또 어떠한가. 게다가 이들은 유독 성적으로 문란하기까지 하다.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남자들을 유혹해대는 고아 지아키, 또 다시 아키코, 동창과 바람을 피운 에쓰코, 십대에 낙태를 하고 매춘부가 된 하나, 거리의 여자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모욕당한 하루키의 아내 등. 퀴어나 HIV 감염 같은 성적인 낙인이 일본인에게만 나타나는 것도 우연은 아니다.

이들과 달리 온갖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출발

했음에도, 명석한 두뇌와 천부적인 사업 수완, 그리고 불굴의 노력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선자의 가족 이야기는 감동적이다. 또한 아름답게 세공된 스위스제 보석 시계를 선자에게 선물하고, 아키코의 부모조차 구하기 힘든 도쿄의 크고 멋진 스튜디오를 노아에게 제공하는 한수의 관대한 모습이나, 요코하마의 이국적인 저택에 살면서 솔로몬의 생일 파티에 일본의 유명 가수를 초대할 수 있을 만큼 재력을 갖춘 모자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즐겁다. 마치 케빈 콰(Kevin Kwan, 2013)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존 추 감독의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2018)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는 매력적인 외모의 아시아인들을 보는 것이 즐겁고, 그들이 자본으로 서양인들의 인종차별과 혐오를 갚아 주는 장면들을 보는 것이 통쾌하듯이 말이다.

그런데 소수의 엘리트 부자 아시아인들과 파친코 재벌들을 제외한다면, 미국사회나 일본사회라는 ‘설국열차’의 맨 꼬리 칸에는 불법 이민자 소수자들이 위치한다는 사실은 변함없지 않은가. 요셉이 가족들에게 절대로 어울리지 말라고 주의시켰던, 이카이노 거리를 영원히 탈출할 수 없는 질 나쁜 재일조선인들, 자신에게 도움을 준 선한 이웃의 것을 스스로없이 훔치고, 늘 술과 약에 취해있고,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에게 매춘을 시키는, 진정으로 “역사가 망쳐버린” 그 형편없는 실패자들 중에서 서사의 전면에 재현되는 자리를 얻은 사람, 약간의 목소리라도 내는 것을 허용 받은 사람이 있었던가.

이 소설이 선자의 가족으로 대변되는 재일조선인을 모범적인 소수자의 형상으로 재현하고, 그들이 단지 민족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일본사회에서 당하는 차별들을 보여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재일조선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에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견 효과적인 전략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서사 속에서 독자의 문제의식은 과연 선자의 가족처럼 모범적이지 않고, 역경을 극복하지도 못한, “일상의 영웅”³⁶이 아닌 현실

36 Arifa Akbar (2017).

의 제일조선인들 및 다른 부류의 소수자들에 대한 공감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어쩌면 『파친코』는 선자 가족의 모범성을 역설하는 한편에서, 은연중에 모범적이지 않은 소수자들이 차별받고 혐오 당하는 현실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오른 살아 있는 모범 소수자 신화의 한 사람으로서 이민진에게 이주민 소수자의 문학적 재현 문제는 중요하다. 이주영과 정기인(2021)도 지적했다시피 그는 작품 활동 초기부터 아시아인에 대한 다양한 재현이 필요하다는 점을 자주 역설해왔다.³⁷

인론과 예술 속에서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대개 그들의 모습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니 미디어를 통해 본 것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건 위험하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몹시 능력 있고, 성실하고, 아주 온순한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아주 교활하고, 음흉하고, 과대망상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쪽이든 실제 주변의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모습을 반영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 이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명료한 목소리와 언어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들의 감성과 현실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내 작업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 시도를 통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사회와 이를 구성하는 복잡한 개인들을 드러내 보이고 싶다. 또한 작가로서 한국계 미국인이 아닌 인물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해내고 싶다.³⁸

37 Joo Young Lee and Kiin Chong (2021), "In Between: Identities in Motion in *Free Food for Millionaires* and *Pachinko*", 『한국현대문학회 2021년 제2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21. 8. 21), 한국현대문학회, pp. 158, 161.

38 이민진(2008), 「한국의 독자들에게: 한국계 미국인들에 대한 사랑과 편견」,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1, pp. 9-10.

실제 그의 첫 번째 장편 『백만장자』는 인종적 소수자이자, 미국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겨져 왔던 재미한인의 재현 문제에 바쳐진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주인공인 케이지 한은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교의 로스쿨에 합격한 뒤 월스트리트에 있는 투자은행과의 최종 고용계약을 앞둔,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을 목전에 둔 인물로 제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성공한 모범 소수자 역할 및 아시아계 여성으로서의 손쉬운 사회적, 성적 대체 가능성을 깨닫고, 그로부터 탈피해 개성적인 모자 만들기로 상징되는 고유한 자아를 창조해나가는 길을 택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비록 기교적으로 미숙하고 산만하게 보일지언정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배경과 이야기를 지닌 재미한인들의 다차원적인 내면과 욕망을 보여주려 시도하였다. 또한 성장의 공식을 따르지 않는 인물들의 변화와, 성공과 동화가 아닌 그들의 좌절과 실패와 방황을 의식적으로 재현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점에서 이 소설은 재미한인 나아가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모범 소수자 서사 및 신화를 부수는 데 기여하였다.

그로부터 십 년 뒤에 발표된 『파친코』에서 작가는 전작보다 훨씬 응집력 있는 서사와 역사적 사실의 바탕 위에서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유사한 문제의식을 관철하고자 시도했다. 일본사회 속의 가려진 음지이면서, 많은 재일조선인의 삶의 터전인 공간, 그리고 “운명을 알 수 없는 도박”³⁹이 그러하듯, 개인의 노력과 모범성이 최종적인 성패 여부를 결정짓지 않음을 시사하는 공간인 파친코라는 매력적이고 은유적인 소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서부터 일관된 문제의식이 확인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형상화하는 재일조선인의 삶은 어떤 독자들이 품었음직한 기대를 배반하고 있다. 재일조선인의 재현

39 김성곤, 「재일교포들의 슬픈 디아스포라」(작품해설), 이민진(2018), 『파친코』 2, p. 390.

의 다양성은 휘발되었고, 앙상한 뼈대로 만들어진 로봇 같은 모범 소수자의 전형들만이 살아남아 조명 받고 있는 까닭이다.

전작 『백만장자』에서 이민진은 케이시를 위시한 한국계 미국인 여성의 서사를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재료로 삼으면서도, 한국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의 스테레오 타입을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을 투영하면서 이들을 대담하게 가공하였다. 이 소설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유형의 인물들이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는지 실험하려는 야심찬 목적의식과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채 말뚝에 메인 줄을 한껏 팽팽하게 풀어낸 것처럼 보인다.

반대로 한국적 유형의 전쟁 이주민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기원을 공유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자신과 덜 닮은 재일조선인을 다룬 『과친코』에서 그는 전작에서와 같은 실험에 덜 민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들 앞에서 재현의 다양성 문제에 강박적이지 않을 수 있었고, 구태여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들로부터 충분한 서술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소설을 집필하기 위한 현지 조사 과정에서 많은 재일조선인을 인터뷰하고, 그들에 관한 학술서적을 읽었다는 사실, 다시 말해 그들이 이민진에게 완벽한 타자였다는 사실은 여러 번 강조된 바 있다. 미국문학에서 재일조선인이 한 번도 재현된 적 없었다는 점도 일조하였다. 요컨대, 그는 재현의 다양성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유례없는 첫 번째 재현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과친코』에서 재일조선인은 작가 자신과 몹시 닮아져 버렸다. “어떤 면에서 『과친코』야말로 자전적”⁴⁰이라는 말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매 순간 역경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소수자,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소수자라는 모범 이주민 소수자 성공 신화의 전형에 부합하는 인물들이 재생산되었고, 그것은 당연하게도 대중의 기대에

40 이소은(2021), 「한국계 소설가 4인: 평범함에 대한 긍정, 민진 리」(인터뷰), 보그 코리아, 두산매거진.

부합하였다. 『파친코』에 대한 미국의, 나아가 전 세계적인 열광이야말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코로나 이후 아시아인에 대한 일상적인 혐오와 증오 범죄가 만연해진 가운데 아시아인의 재현 문제가 어느 때보다 첨예한 오늘날이다. 이 글에서는 이주민 소수자 서사라는 측면에서 『파친코』가 일본사회의 소수자이자, 아시아계 미국문학에서 한 번도 다루어진 적 없는 범주의 아시아인으로서 제일조선인을 재현하는 방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교차성 페미니즘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파친코』가 시도한 도전과 성취를 부각하였다. 겹겹의 소수자성을 지닌 서발된 여성의 능동적 행위로서 이주를 서사화하고, 소수자들의 불온한 공동체로서 열린 가족적 관계들을 가족사 연대기 소설 형식 안에 기입하였다는 점이 이와 관련해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파친코』가 재현한 불온한 공동체 속의 소수자들이 불온하기는커녕 너무도 모범적이라는 점, “역사가 우리를 망쳐 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⁴¹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성공한 이주민 소수자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전작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에서부터 작가가 부수려 시도한 모범 소수자 성공 신화의 전형을 재생산하는 측면을 비판하였다. 요컨대, 『파친코』는 전 세계적인 흥행을 넘어 아시아인의 재현에 대한 더 많은 발굴과 창조라는 긴요한 과제를 우리 앞에 남겨두고 있다.

41 이민진(2017), p. 11; Min Jin Lee (2017), p. 3.

참고문헌

자료

- 이민진(2018), 이미정 역, 『파친코』 1, 2, 문학사상(1판 15쇄 2021. 1).
- 이민진(2008), 이옥용 역,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 1, 2, 이미지박스(1판 1쇄 2008. 4).
- Lee, Min Jin (2017), *Pachinko*, New York: Grand Central Publishing (First Trade Paperback Edition: November 2017; Printing 20, 2020).
- Lee, Min Jin (2007), *Free Food for Millionaires*, New York: Grand Central Publishing (First Paperback Trade Edition: April 2008).
- Chu, Jonathan Murray (2018), *Crazy Rich Asians*. [Film]
- Chung, Lee Isaac (2020), *Minari*. [Film]

논저

- 강유진(2019),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서평), 『교양학연구』 9, 중앙대학교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 권현익(2020), 정소영 역, 『전쟁과 가족』, 창비.
- 김성곤, 「재일교포들의 슬픈 디아스포라」(작품해설), 이민진(2018), 이미정 역, 『파친코』 2, 문학사상.
- 김윤식(1988), 「6.25 전쟁문학」, 『한국현대문학사론』, 한샘.
- 김현경(2015),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 베네딕트 앤더슨(2002),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 손영희(2020), 「디아스포라 문학의 경계 넘기: 이민진의 『파친코』에 나타난 경계인의 실존양상」, 『영어영문학』 25(3), 미래영어영문학회.
- 오드리 로드(2018), 주해연·박미선 역, 『시스터 아웃사이드』, 후마니타스.
- 오태영(2021), 「경계 위의 존재들: 이민진의 『파친코』를 통해 본 재일조선인의 존재 방식」, 『현대소설연구』 82, 한국현대소설학회.
- 이경재(2021), 「이민진의 『파친코』에 대한 젠더지리학적 고찰」, 『춘원연구』 22, 춘원연구학회.
- 일라이 클레어(2020), 전혜은·제이 역, 『망명과 자긍심: 교차하는 퀴어 장애 정치학』, 현실문화.
- 임진희(2019), 「민진 리의 『파친코』에 나타난 재일한인의 장소담론」,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논문지』 9(8),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정창훈(2021), 「국가적 서사 담론의 ‘여백’을 기록하기」(서평), 『상허학보』 62, 상허학회.
- 최경희(2006), 「식민지적이기도 민족적이지도 않은: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1」에서 ‘신

여성'의 형성」,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서』(신기욱 외 편), 삼인.

캐시 박 흥(2021), 노시내 역, 『마이너 필링스』, 마티.

파이차체 스페틀라나·현무암 저, 고토 하루키 사진(2019), 서재길 역, 『사할린 잔류자들』, 책과함께.

Lee, Joo Young and Chong, Kiin (2021), "In Between: Identities in Motion in *Free Food for Millionaires and Pachinko*", 『한국현대문학회 2021년 제2차 정기학술대회 자료집』(2021. 8. 21), 한국현대문학회.

Munson, Todd (2019), "Contextualizing Min Jin Lee's *Pachinko*", *Education About Asia* 24(3),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Yuh, Ji-Yeon (2005), "Moved by War: Migration, Diaspora, and the Korean War",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8(3),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인터넷 자료

이소은(2021), 「한국계 소설가 4인: 평범함에 대한 긍정, 민진 리」(인터뷰), 보그 코리아, 두산매거진, 2022. 1. 5.

<https://www.vogue.co.kr/2021/07/26/%ED%95%9C%EA%B5%AD%EA%B3%84-%EC%86%8C%EC%84%A4%EA%B0%80-4%EC%9D%B8>

Akbar, Arifa (2017), "*Pachinko* by Min Jin Lee—everyday heroes", *Financial Times*, February 24, 2022. 1. 5.

<https://www.ft.com/content/01c1e6cc-f75e-11e6-bd4e-68d53499ed71>

Bigman, Fran (2017), "Shadow of the stain: Min Jin Lee's moving saga of a Korean family in Japan", *Times Literary Supplement* 5947, London: NI Syndication Limited, March 24, 2022. 1. 5.

<https://go.gale.com/ps/i.do?id=GALE%7CA634972516&sid=googleScholar&v=2.1&it=r&linkaccess=abs&issn=0307661X&p=LitRC&sw=w&userGroupName=anon%7E4ac9747c>

Cheung, Alexis (2019), "An Interview with Min Jin Lee", *The Believer* 127, October 1, 2022. 1. 5.

<https://believermag.com/an-interview-with-min-jin-lee>

Lee, Min Jin (2021), "A Lifetime of Reading Taught Min Jin Lee How to Write About Her Immigrant World", *The New York Times*, April 7, 2022. 1. 5.

<https://www.nytimes.com/2021/04/07/books/review/min-jin-lee-writer.html>

Lee, Min Jin and Winchester, Simon (2017), "Immigration Stories: Min Jin Lee with Simon Winchester (The New York Public Library, April 18, 2017)", *Library Talks Podcast*, July 25, 2022. 1. 5.

<https://www.nypl.org/blog/2017/07/24/podcast-174-immigrant-stories-min-jin->

lee-w-simon-winchester

Soble, Jonathan (2017), "A Novelist Confronts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Korea", The New York Times, November 6, 2022, 1. 5.

<https://www.nytimes.com/2017/11/06/books/book-pachinko-min-jin-lee-japan-korea.html>

원고 접수일: 2022년 1월 6일, 심사 완료일: 2022년 2월 2일, 게재 확정일: 2022년 2월 8일

ABSTRACT

Beyond Model Minority

Na, Boryeong*

Challenges and Paths Forward for
the Immigrant Minority Narrative as
Seen Through Min Jin Lee's *Pachinko*

This article examined how Min Jin Lee's *Pachinko*, as a narrative on the immigrant minority, sheds light on Koreans living in Japan, a minority group in Japanese society and one that has not been dealt with in Asian-American literature. The achievements of the minority in the novel are highlight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sectional feminism and transnationalism. Immigration is portrayed as an active move by subaltern women, who are characterized by layers of minority identity. An important discussion was how the minorities' family relations as 'bad Gemeinschaft' were delivered in the form of a family chronicle.

Despite such achievements, the minority group in the 'bad Gemeinschaft' created by *Pachinko* are exemplary, and far from 'bad.' It is ironic to say "History has failed us, but no matter" considering their huge success as immigrant minority. In fact, the model minority stereotype, which the author attempted to break free from in her previous novel *Free Food for Millionaires*, is reinforced. Given the surge in anti-Asian sentiments following the outbreak

* Research Fellow, The Center for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COVID-19, representing Asians in a genuine, accurate manner is a more critical agenda than the worldwide success of *Pachinko*.

Keywords Min Jin Lee, Diaspora, Zainichi Korean, Migration Narrative, US Immigration Narrative, *Free Food for Millionaires*, *Minari*, American Dream, Korean American, Asian American, Asian American Literature, Intersectional Feminism, Transnationalism

